

# 한국 新宗教 의례복식의 특성에 관한 연구 — 수운교, 미륵불교, 대종교, 원불교를 중심으로 —

임 상 임

원광대학교 의상학과 조교수

## A Property of New Religious Ritual Dress in Korea — on the Point of Soowoongyo, Mirukbulgyo, Taejonggyo, Wonbulgyo —

Sang-Im Im, Assistant Professor

Dept. of Clothing, Assistant Professor of Wonkwang University

### 目 次

Abstract	1. 多元性
I. 서론	2. 民族 主體性
II. 新宗教 개념 및 특성	3. 象徴性
1. 新宗教의 개념	4. 思想性
2. 新宗教의 특성	IV. 결론
III. 新宗教 의례복식의 특성	참고문헌

### Abstract

This thesis is a study on the properties of new religious ritual dress in Korea to help understand new religions more completely.

A new religion means 'Newly born religions' and it is an opposite conception of the existing religion.

The new religions in Korea have been established, changed and become extinct beginning with "Dong-Hak" movement by Choi Jea Woo in 1860. Sometimes they've caused social problems with their number increasing after the rapid industrialization in 1970's.

\* 이 논문은 1996학년도 원광대학교 교비 지원에 의해서 연구됨.

There are about 350 new religions and 2,000,000 christians in Korea now. Some of them are pseudo religions wearing the mask of religion and also there are great new religions that will contribute to our spiritual history. The latter shows the thoughtful properties of the union of religion, postnatal creation, nation's independence, and human's centralization.

There are properties of pluralism, nation's independence, symbolism, and thoughts in a new religious ritual dress.

## I. 서론

현재 우리 나라에는 350 여개의 신흥 종교와 200 여만 명의 신도가 있으며 이들 신흥 종교 중 약 80 %인 280 여개는 인성 파괴의 집단인 사이비 종교라고 한다<sup>1)</sup>.

우리 나라의 신흥 종교는 1860년 水雲 崔濟愚에 의해 창시된 동학을 효시로 하여 끊임없이 생성, 변화, 소멸을 거듭해 오고 있다. 1970년대 산업화 이후 급격히 그 수가 증가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있다. 지난 1994년에는 신흥 종교 문제를 연구하던 탁명환씨가 광신도에 의해 피살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추정되는 아가동산과 영생교 사건으로 인하여 사이비 종교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다.

종교를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므로, 현대인들의 다양한 욕구를 기성 종교에서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그들은 새로운 종교를 갈망하게 될 것이며 그 만큼 사이비 종교에 빠져들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어떤 종교가 사이비냐 아니냐 하는 판단은 특정한 원칙이 없이 다만 인간 사회의 공헌 여부 다시 말해 특정 종교가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지에 따라 판단될 뿐이므로<sup>2)</sup>,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종교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수용하는 종교 문화와 신흥 종교에 대한 이해가 우선될 때 가능할 것이다.

일부 사이비 종교 문제로 인하여 신흥 종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증폭되고 있으나, 한국의 신흥 종교는 동학에 이어 천도교, 증산교, 대종교, 원불교 등으로 이어져 19 세기 중엽 이후 민족 의식을 바탕으로 민중의 자각을 불러 일으켜 민족 문화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sup>3)</sup>. 또한 이들의 사상 속에는 인간과 자연이 하나 되어 조화로움 속에 21 세기의 환경 문제를 이끌어 갈 '그린르네상스'의 본바탕이 될 수 있는 사상이 내재되어 있으며<sup>4)</sup> 교리 속에서 환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이념과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여<sup>5)</sup> 이미 환경 운동의 문제 해결에 앞장 서 사회 발전에 공헌해 오는 교단도 있다.

복식은 삶과 사상을 실어 넣은 가시적인 문화이므로, 본인은 신흥 종교 복식의 연구를 통해

1) 동아일보, 1996년 12월 2일.

2) 원불교 사상 연구원, 崇山論集, 원광대학교 출판국, p.106, 1996.

3) 유병덕, 한국 민족종교 사상론, 시인사, pp.10-13, 1985.

4) 張元, "환경 세계화와 그린르네상스", 96원불교 교수협의회 정기학련 발표 초록, pp.17-27, 1996.

5) 김성택, "원불교의 환경윤리", 원불교와 학문(원불교 교수협의회) 제1집, p.3, 1996.

신종교와 그 사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sup>6)</sup>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 나라 신종교 중에서 류병덕<sup>7)</sup>의 분류에 따라 의례복식이 제도화되어 있는 동학계의 수운교, 증산계의 미륵불교, 대종교, 원불교 등 신종교를 대상으로 하여 신종교 개념과 특성에 대하여 고찰한다. 연구자료와 연구방법은 문헌 자료와 실물 자료인 현재 착용되고 있는 의례복식을 중심으로 이론 작업과 현지조사 작업을 병행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택하여 한국 신종교 의례복식의 특성을 찾아 종교 복식 문화의 깊은 정신을 발견하고자 한다.

연구의 제한점은 본 연구의 목적이 본인이 이미 발표한 바 있는 선행 연구들<sup>8)</sup>을 기초로 하여 신종교 복식의 공통적인 특성을 찾는 데에 있으므로, 다양한 개별 종교의 의례복식 전반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자세하게 고찰할 수 없어 많은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독자에게 이해의 어려움을 끼친 점이다.

## II. 新宗教 개념 및 특성

### 1. 新宗教의 개념

한국 종교는 일반적으로 한국 내에서 신도를 가지고 종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모든 종교 집단체를 의미하며 외래 종교와 국산 종교로 나눌 수 있다<sup>9)</sup>. 전자에는 불교, 유교, 도교, 기독교, 천주교 등이 있으며 후자에는 천도교, 증산교, 대종교, 원불교 등이 있다. 선교 역사로 볼 때 전자를 기성 종교, 후자를 신종교 또는 신종교라 부르기도 한다.

신종교라는 단어는 1860년 최제우가 일으킨 동학을 효시로 하여 나타나기 시작한 새로운 종교 현상을 일컫으며 기성 종교에 대하여 근세 이후 한국에서 새로 생겨난 모든 종교 단체를 의미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sup>10)</sup> 신종교와 구별없이 사용되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사이비 종교 혹은 유사 종교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신종교라는 말은 한국 학계에서 1960년대부터 일부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다가 1985년 한국 종교학회 柳炳德의 발표에서부터 정착되기 시작한 표현으로, 그는 신종교를 신종교와 구별하여 종교의 가르침 속에 진리성, 윤리성, 역사성, 대중성이 들어 있으면 신종교로 보자고 하여 그 범위를 수운의 천도교, 김일부의 정역 사상에 근거한 종교, 증산의 증산교, 나철의 대종교, 소태산의 원불교 등 5대 종교 유형을 들고 있다<sup>11)</sup>. 따라서 신종교라는 개념 속에는 그 종교의 가르침 속에 세계 종교로서의 충분한 조건이 갖추어지고 역사적 창조 의식이 충만한 새종교, 또한 그 종교가 대중의 교화를 위한 교단 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교리의 보편성을 가진 종교라면 신종교라 할 수 있다<sup>12)</sup>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종교는 기성 종교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새로 일어난 종교라는 의미에서 신종교와 구별없이 사용되나 대체적으로 근세 이후 한국에서 새로 창립된 종교 중에서 교리나 사상, 제도 등이 건전한 종교에 대해서는 신종교보다는 신종교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6) 임상일, 한국 신종교 의례복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1.

7) 유병덕,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종교학회, p.423, 1985.

8) 참고문헌을 참조 바람.

9) 유병덕, 한국 신종교, 시인사, p.63, 1986.

10) 김태근의 7인, 한국종교,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p.300, 1983.

11) 김홍철, 한국신종교 사상의 연구, 집문당, p.14, 1989.

12) 유병덕,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종교학회, p.423, 1985.

있다. 이 같은 관점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이다<sup>13)</sup>

## 2. 新宗教의 특성

한국에서의 신종교 수가 정확히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으나 1985년 탁명환의 조사(한국 신종교 문제 연구소)에서는 404 개 교단, 1989년 김홍철의 조사에서는 408 개 교단에 이르고 있으며 현재 활동하고 있는 종교만도 300 여개가 된다고 한다<sup>14)</sup>.

이들 신종교들은 기성 종교에서 분파된 신종교, 한국 개창의 신종교, 외래 신종교로 대별할 수 있으며<sup>15)</sup>, 교주의 來歷, 교리의 맥락, 교단의 체제 등을 분석 종합하여 계보에 따라 분류하면 東學系, 龜山系, 佛敎系, 儒敎系, 檀君敎系, 巫敎系, 基督教系, 奉南系, 覺世道系, 系譜不明, 外來系 등으로 나눌 수 있다<sup>16)</sup>. 본 연구에서 중심 대상으로 하는 수운교는 동학계, 미륵불교는 증산계, 원불교는 불교계, 대종교는 단군계에 속한다.

신종교의 발생 양상은 비단 한국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양상으로 그 발생 동기는 지역적, 역사적, 사회적 계반 여건과 상황에 따라 다르나, 한국의 신종교는 구한말의 혼란, 이조의 폐망, 일제의 침략, 8.15 해방, 한국 전쟁 등 국가적 대변혁의 악순환 상태에서 정치, 사회, 종교적 불안, 가치관의 부재 등 복합적 사회 병리를 요인으로 창립되었다<sup>17)</sup>.

이와 같은 사회적 배경 하에 출현한 한국 신종교는 대부분 창교자의 깨달음에 의하여 창교되고 있고 그 깨달음의 차원에서 각기 그의 사상을 제시하고 있지만, 여러 면에서 서로 공통적인 특성이 발견되고 있다<sup>18)</sup>.

첫째로 宗教 合一性이다<sup>19)</sup>. 신종교는 기존의 유·불·도는 물론 서양의 기독교, 민속 신앙까지 융섭·활용하는 宗教會通의 성격을 지닌다. 천도교는 유교를 중심으로 유·불·도 3교를 합일하고 있으며, 증산교는 仙을 우위로 하고 모든 종교를 조화시킨다는 교의를 갖고 있으며, 원불교는 佛을 주체로 하고 모든 종교와 사상을 회통시키는 특징을 갖고 있다<sup>20)</sup>. 이러한 3교 일치관은 우리 민족이 고래로부터 간직해 왔던 사상으로 삼국,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면면히 이어져 민족 문화의 저류를 이루어 왔을 뿐만 아니라<sup>21)</sup> 신종교의 사상적 근간을 이루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22)</sup>.

둘째로 後天開闢性이다. '후천개벽'이란 신종교에서 새로운 역사 이해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신앙의 표현으로, 현재까지를 선천개벽에 속하는 낡은 역사로 보고 현재부터 미래를 후천개벽에 속하는 새 세상으로 보는 역사관이다<sup>23)</sup>. 이 사상은 기성 종교에서 내세의 천국을 말하는 데 반해 현세적 지상 낙원을 지향하는 데에 특징이 있으며, 선천의 특징은 어둡고 미개하고 혼란한 세상으로 후천의 특징은 밝은 세계, 문명 세계, 질서나 평등의 세계, 합리의 세계

13) 류병덕의 2인, "한·중·일 3국 신종교 실태의 비교연구",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p.422, 1992.

14) 류병덕의 2인, 앞의 논문, p.14.

15) 류병덕의 2인, 앞의 논문, p.34.

16) 문상희, "한국 신흥종교의 계보", 크리스찬 아카데미, p.8, 1971.

17) 류병덕의 2인, 앞의 논문, p.34.

18) 김홍철, 앞의 책, pp.16-24.

19) 文相熙, "한국의 신흥종교", 한국종교, 한국종교사학회, p.325, 1983.

20) 류병덕의 2인, p.422.

21) 백준흠, 삼동음리에서 본 종교다원주의, 원불교학 창간호, p.242, 1996.

22) 김홍철, 앞의 논문, p.120.

23) 문상희, 앞의 논문, pp.327-329.

로 규정짓고 있다<sup>24)</sup>

셋째로 民族主體性이다. 신종교 창립자들은 강한 민족 주체의식을 가지고 한국이 장차 세계의 중심국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며 한국을 중심으로 한 후천의 낙원 세계가 건설되리라는 것이다<sup>25)</sup>. 이러한 選民思想은 한말과 일제 치하에서는 민족주의의 양식으로서 행동화하여 나타났으며 해방 후에는 급변하는 역사적 사회적 소용들이 속에서 불안과 소외감에 빠진 민중에게 선민 의식을 고취하기 시작하였다<sup>26)</sup>.

넷째로 人間中心性이다. 선천의 종교들이 神을 중심으로 한 종교라면 이들 신종교 속에는 인간 중심으로 모든 사상과 교의가 되어 있다. 이들 신종교에서는 지금까지의 사회는 인간의 존엄성을 억누르고 말살시키는 사회였다고 비판하면서 앞으로는 인권을 되살리고 존중하는 인권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섯째로 社會改革性이다. 대다수의 신종교 창시자들은 강한 사회 개혁 의지를 가지고 당시 사회가 크게 병들어 있음을 지적하고 다양한 사회 개혁 활동을 전개했다. 水雲의 사회 개혁의 하나인 廣濟蒼生運動은 훗날 동학혁명의 정신적 바탕이 되었고 3.1 독립운동의 중심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sup>27)</sup>.

이밖에 말세를 구원할 구세주가 바로 그 교단의 창시자이며 신앙의 대상이라고 하는 구세주 신앙, 기존의 모든 종교와 사상이 자기 종교에서 통일되고 있다고 하는 통일 사상, 전통 문화를 계승 내지는 발전시키는 가르침을 펴고 있는 전통 문화의 계승성 등도 신종교에서 대체로 나타나는 특성들이다.

### Ⅲ. 新宗教 의례복식의 특성

신종교 중에서 의례복식이 제도화되어 있는 수운교, 미륵불교, 대종교, 원불교를 중심으로 그 특성인 多元性, 民族 主體性, 象徵性, 思想性을 고찰한다.

#### 1. 多元性

한국의 사상사적 맥락에서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圓融會通的인 면으로 종교간에 서로 갈등없이 존재하는 다원주의 사상이다. 종교다원주의자인 존 힉크(John Hick)는 절대무와 인격신으로 대별되는 동서양의 종교를 힌두이즘을 통해 종교다원주의를 실현시키고자 하고 있다. 최치원은 일찍이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는데 풍류도이며, 풍류도는 유·불·도의 3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했다. 대종교는 이런 풍류도의 맥을 이어받고 있으며 천도교, 증산사상, 원불교 등도 모두 이 같은 인격신, 절대무 그리고 실천 의지의 삼대 요소를 지니고 외래종교와의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sup>28)</sup>. 이처럼 타종교와의 대화와 만남의 시도는 한국 종교의 오랜 전통인 뿐만 아니라<sup>29)</sup>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신종교에서도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

24) 김홍철, 앞의 논문, p.103.

25) 류병덕의 2인, 앞의 논문, p.422.

26) 문상희, 앞의 논문, pp.333-336.

27) 김홍철, 앞의 논문, p.201.

28) 김홍철의 2인, 한국신종교사상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pp.217-219, 1992.

29) 백준홍, 앞의 논문, pp.242-246.



<그림 1> 수운교의 의례복장

나이다. 이러한 화합의 다원주의 특징은 그들의 의례복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그림 1>은 천도교의 일본파인 수운교<sup>30)</sup>의 의례복장이다. 수운교의 의례복은 1923년 창교와 동시에 제정되었으며, 의례복은 仙冠 仙服, 道冠 道服, 佛帽冠 天衣 등 道位<sup>31)</sup>에 따라 착용되는 3종의 법복과 法帶, 六環丈, 繡鞋 子 등의 부속품으로 구성되어 있다<sup>32)</sup>. <그림 1>의 복장은 수운교의 최고의 도위에 있는 尊子가 착용하는 복장으로, 여기에서 보면 머리에 쓰고 있는 관의 형태는 紗帽와 유사하여 조선시대 백관의 常服에 착용되는 사모를 기본으로 하여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관의 색상은 검정이 아닌 고흥색이며 소재는 紗가 아닌 합성섬유를 사용한 점이 다르다. 관의 앞면에는 '佛天心'의 글귀와 음주 형상의 문양을 넣어 불교적인 의미를 담고 있으며 관의 명칭도 '佛帽冠'이라 명명하는데서 알 수 있듯이 다분히 불교적이다. 법복은 도포가 아닌 등근 깃의 단령의 형태이면서 그 명칭은 '道服'이라 하여 교인이면 누구나 착용할 수 있는 仙服과는 달리 도위가 높은 구만이 착용하는 즉, 道儀 實行이 잘된 자가 착용하는 도인의 복장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도복 위에 입으며 가슴 앞에서 교차시켜 착용한 天衣는 가사와는 달리 條가 없지만 그 형태가 불교의 가사와 유사하며 '天衣 袈裟'라고도 하나 그 뜻은 '하늘 사람 옷' 즉 신선이 입는 옷이라는 도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맨 마지막에 착용하는 帶는 사대부의 복장을 마무리함은 물론 품간의 표시이기도 하여 빼놓을 수 없는 중요 품목이었다. 수운교의 帶는 단령의 帶와 달리 帶의 넓이가 매우 넓고 중앙에 사각형의 수놓은 흉배를 배치한 점이다. 원래 흉배는 단령의 가슴에 달려 있었던 것을 허리로 내려 대로 만들었다. 또한 허리 앞 중심에서부터 밑으로 길게 내려진 帶의 끝에는 음주 형상을 수놓고 있다.

또한 <그림 2>는 수운교의 仙服으로 15세 이상의 모든 교인이 착용할 수 있는 敎服의 성격을 지닌 법복이다. 선복은 그 형태는 도교의 학창의에 기본을 두고 선의 색을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나 그 명칭은 도교적 의미를, 색상은 회색을 사용하여 불교적 의미를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또한 도위를 받은 교인이면 의례시에 누구나 다 착용하는 예의 상징복으로 간주하여 유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0) 1923년 李象龍이 創敎. 현 본부는 대전시 유성구 추목동 403번지이다.

31) 수운교에서는 만15세 이상 敎人이면 道號와 道位를 수여하는데, 도위는 남자는 13등급, 여자는 5등급으로 구분된다.

32) 임상임, "한국 산종교 의례복식 고찰(Ⅰ)", 복식, 한국복식학회, 제19호, p.101, 1992.



<그림 2> 수운교의 仙服



<그림 3> 미륵불교의 의례복장

원불교의 絡子は 조계종의 絡子와는 달리 條가 없으며 대신 황토색 바탕에 황색 금사를 사용

<그림 3>은 미륵불교<sup>33)</sup> 의례복이다. 미륵불교의 의례복은 仁和冠, 正服, 袍衣로 구성되어 있으며 손에 단주를 들고 목에 염주를 한다. 仁和冠의 형태는 불교의 상징적인 冠인 蓮花冠의 형태이나 '天·地·人' 중에서 '人'을, '儒·佛·仙' 중에서 '儒'를 상징하여 그 의미 역시 冠을 착용한 자는 '仁義禮智'를 행하도록 하는 유교적 내용을 담고 있다. 正服은 조선조 사대부들이 주로 착용하던 소매가 넓은 周衣의 형태이면서, 정복이 지닌 의미는 '부모부터 받은 상서로움으로 代代子孫에 근원하여 도덕의 본체를 전수한다<sup>34)</sup>'는 범복의 주체로서 도교적 의미를 지니며, '天·地·人' 중에서 '天'을, '儒·佛·仙'중 '仙'을 상징한다. 袍衣는 어깨에 두르는 케이프의 일종으로 천주교의 갑마와 유사하면서 그 의미는 부처의 관후함을 뜻하는 불교적 의미를 상징한다<sup>35)</sup>.

원불교<sup>36)</sup>는 불교적인 색채가 짙으면서도 원초적인 불교가 아닌 생활 불교로서<sup>37)</sup> 불법을 주체로 하여 각 종파 불교를 通宗教로 개혁 혁신코자 하여 창립한 종교이다. 의례복식은 '法絡'이라 부르며 法衣와 絡子로 구성된다. 법의는 옆트임이 있는 단령이나 회색이며, 목에 걸고 있는 絡子は 불교의 五條袈裟와 유사하여 다분히 불교적이다. 우리나라에서 五條袈裟는 장삼을 입고는 큰 가사를 걸치지 못하므로 승려라는 표시의 역할을 하기 위해 착용한 것으로<sup>38)</sup>, 위쪽에 띠를 달아 목에다 걸고 두 어깨를 통하여 가슴 앞에 걸치는 것으로 이름을 掛絡 혹은 絡子라고 하는데, 해방후 일본의 禪宗系統 즉 臨濟宗의 것을 본받은 것이라고 한다<sup>39)</sup>.

33) 1901년 美飯山이 창교한 증산교의 一分派. 1934년 鄭實杓가 創立. 현 본부는 전라북도 정읍군 태인면 태용리.

34) 미륵불교 총본부, 報恩詳禮大全 5 袍衣 正服 詳禮文.

35) 임상임, "한국 신종교 의례복식 고찰(Ⅱ)", 원광대학교 논문집, 제27집, p.365, 1993.

36) 1919년 소태산 朴重彬이 창교. 현 본부는 전북 익산시 신용동.

37) 탁명환, 한국신종교실상, 국종출판사, p.71, 1991.

38) 안명숙, "袈裟의 衍義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9, 1989.

39) 김태희, "韓國僧服의 歷史的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5, 1988.



<그림 4> 원불교 의례복장

하여 원불교에서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있는 둥근 원(一圓相)이 수 놓아져 있다.(그림 4)

이와 같이 신종교 의례복식은 각기 독자적인 형태이면서도 디자인 발상의 원천은 기성의 여러 복식에서 아이디어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 신종교 복식은 어떤 한 종교 복식에 국한하지 않고 기성 종교 복식에서 형이나 색, 명칭, 문양 또는 의미들을 취하여 습합, 변형하여 새로운 형태를 창출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종교 복식 디자인에서의 다원성은 신종교 사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종교 합일 사상을 나타내기 위한 상징의 표현이라고 보여진다.

## 2. 民族 主體性

대부분의 신종교는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기인 개화기를 전후로 하여 민족의 생존이 위태로울 때 창립되었다. 그러

로 이들 신종교 사상에는 강한 민족 주체 의식이 강조되고 있으며 그들의 의례복에서도 이러한 사상이 반영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대부분의 신종교 의례복식의 기본 형태가 우리 고유 의복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륵불교의 正服(그림 3 참조)은 소매통은 비교적 넓은 편이나 옆트임이 없는 두루마기 형태이다. 특히 대종교<sup>40)</sup>의 재천 의식복은 우리 기본 복식 형태를 그대로 취하여 의례복으로 제정하였다<sup>41)</sup>.

대종교의 의례복은 의식을 거행하는 자에 따라 主祀服, 守護服, 禮員服이 있으나 그 형태는 똑 같으며 가장자리 선의 색에서만 차이가 있다. <그림 5>는 主祀服으로 곧은 깃에 우측으로 옷깃을 여미며 옆 트임이 없고 깃, 수구, 단에 청색선이 둘러져 있다. 즉 우리나라 기본 袍에서 쇠선이 없는 것만 다르다. 색상도 우리 민족의 상징색인 백색을 사용하며 재질도 고래로부터 우리 선조들이 사용해 오던 견직물을 사용하여 민족 주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원불교 여자 교무들은 동복에는 검정 저고리 치마를 입고 하복에는 흰 저고리 검정 치마를, 춘추에는 회색 저고리 검정 치마를 입는다. 머리는 어깨 길이 정도의 단발로 깎아 쪽을 하며 짧은 고름의 저고리에 발목이 보일 정도 길이의 통치마를 입는다. 이러한 복장은 오늘날의 한복의 실루엣과는 약간 차이가 있으나 그 기본 구조는 한복의 형태로 민족 주체성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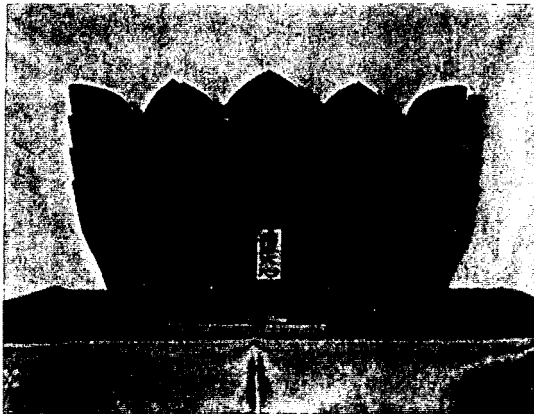
40) 1909년 홍암 나철이 창교. 현 본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은동.

41) 임상임, 한국신종교 의례복식 고찰(Ⅰ), 복식19호, 한국복식학회, p.95, 1992.





<그림 5> 대종교의 主祀服



<그림 6> 수운교 남자 仙冠

### 3. 象徵性

일반적으로 착용자가 어떤 의복을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여 착용하게 되며, 이때 그가 착용한 복식의 요소와 그의 복식 행동에 따라 상징화가 이루어지며 관찰자는 그것들로부터 객관적 의미 또는 주관적 의미를 파악하게 된다. 현대 사회는 개성을 추구하는 포스트 모던 사회이므로 의미의 객관적, 동일성보다는 주관적, 다의성을 추구하여 상징의 해석도 주관적 다의적으로 되어 가고 있다<sup>42)</sup>.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징물을 통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다분히 주관적일 수도 있다. 또한 의미는 상징에 나타나 있고 이 상징을 통해 의미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

대다수의 기성종교 복식에도 상징이 강하게 나타나 의미 전달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성 종교 복식은 초기에 일상복이던 것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제도화되고 제식화되면서 또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의미가 부여되고 상징성이 강화되었다면, 신종교 복식은 창교자 자신이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여 의례복을 제정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신종교 의례복식은 그들의 종교 사상과 창조주

의 정신이 강하게 반영된 하나의 상징물이다.

수운교 의례복식은 교인의 도위에 따라 의례복의 종류를 달리 착용하여 종교적 인격 완성의 정도를 나타낸다. 특히 仙冠(그림 6)의 層數와 仙服(그림 2 참조)의 線數는 신앙의 경력과 교의실행의 정도를 표현한다. 즉 선관의 층과 선복의 선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도위가 높고도의 실행 정도가 잘 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유·불·도 삼교가 형태나 색, 문양, 명칭 등의 표현 수단을 통하여 의례복식에 구현되어 의례복식 자체가 유·불·도 삼교 합일 사상을 표상하고 있다. 따라서 의례복식을 착용한다는 것은 곧 내몸에 삼교 합일 사상을 수용하여 국한없이 하나 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곧 우주의 이치를 본받아 지상천국을 실현하는 도덕인이 되고자 하는 바람을 예복을 통해 표상하고자 한 것이다. 또한 의례복식은 만 15세 이상 교인이 되면

42) 유지현의 2인. "텍스트로서의 소설에 나타난 상징의 의미분석 방법론과 그 적용", 복식문화연구, 7호, p.35, 1996.

착용하여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고 이제부터 예의를 아는 성인으로 자라고자 하는 바램과 의지를 담은 상징물로 인식되었다.

미륵불교의 의례복식은 그 자체가 상징의 결합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상징성과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仁和冠은 유·불·도교 중 유교를 상징하며, 天·地·人 중 사람을, 父·母·我 중 자기를 상징하며, 正服은 道教, 天, 父를 상징하고, 袍衣는 佛敎, 地, 母를 상징하여 결국 의례복식은 유불선 삼교 합일 사상 및 우주의 원리, 조화의 원리, 상생의 원리를 표현하는 상징물이다. 그러므로 의례복식 자체는 소우주인 만큼 의례복식을 착용하는 자는 천지인의 도를 본받아 대도를 이루고자 하는 염원과 천지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감사의 마음을 그것에 담아 표현하고자 하였다.

대중교의 의례복식은 형태와 색, 재질 등에서 우리의 것을 계승, 보전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리하여 의례복식은 백의민족을 상징하며, 그 속에는 고유 민족 정신을 전승해 간다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고, 국조 단군 한배검의 은혜에 정성을 다하여 보답한다는 마음의 표상이기도 하다.

원불교의 의례복식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화하면서 의례복식에 시대화, 대중화, 생활화 등 원불교의 종교 사상을 표현하고 있으며, 교단에서 인정하는 자만이 착용할 수 있으므로 일반 교인과 구별되는 신분 상징성이 있다. 특히 쪽진 머리에 저고리, 치마를 입은 여자 교무복장은 백의민족을 상징함은 물론 타종교에 대하여 원불교의 상징처럼 되고 있으며 사치 예방과 검소 절약 등 원불교의 창교 정신이 내재되어 있다. 법락에는 법을 끌고루 전한다는 뜻이 내재되어 법의 전수를 상징하며 대법을 전해 받은 사은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더욱 정진하여 불보살이 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각 신종교 의례복식은 복식의 형이나 색, 명칭 등을 통하여 종교 이념을 함축적으로 상징하고 있어 의례복식 자체가 하나의 상징물이다.

#### 4. 思想性

종교는 문화의 정신적 뿌리이며, 복식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사상을 담은 그릇이다. 그러므로 종교복식에는 종교사상 뿐만 아니라 그 시대사상도 인위적으로 혹은 자연스럽게 담겨있다. 대다수의 신종교가 개화기를 전후로 하여 창교된 관계로 이들 신종교 복식에는 우리의 전체 정신사에 기여할 신종교 사상과 민족적 위기를 맞이하여 주권을 수호하고 자주독립을 보존하려는 힘의 원천인 개화 사상이 동시에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sup>43)</sup>.

신종교 복식에 내재된 신종교 사상들은 대체로 종교합일 사상, 후천개벽 사상, 사회개혁 사상, 인간중심 사상, 민족주체 사상, 인간·환경 조화 사상 등을 들 수 있다.<sup>44)</sup> 개화기는 민족사상의 격변기로 동학 사상, 개화 사상, 위정척사 사상의 3대 사조가 형성되어 다양한 사상으로 발전하였으며, 특히 복식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사상은 평등 사상, 개화자강 사상, 위정척사 사상 등이다.

백의 폐지에 대한 주장이 동아일보에 1922년부터 기사화 되기 시작하여 1930년대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 각계의 계몽으로 염색 착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sup>45)</sup>. 당시 사회 개혁 계

43) 임상임, “신종교 복식과 개화기 사상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논문집, 제31집, p. 1432, 1996.

44) 임상임, “한국 신종교 의례복식과 思想에 관한 연구”, 복식 제27호, 한국복식학회, p. 50, 1996.

45) 손병남, “동아일보에 나타난 복식의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그림 7> 한얼교 의례복

몽 운동의 하나로 전개된 유색옷 입기에 신종교들은 동참함으로써 사회개혁 사상을 의례복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다. 개화가 촉진되기 위해서는 복식개혁의 단행에서 부터라고<sup>46)</sup> 인식된 개혁의 물결은 신여성들에게 확산되어 의복 개량의 문제로 대두되었고, 그 결과 의복의 개량화, 색복 착용, 사치 금지, 관혼 상제 의식의 간소화 등이 이루어졌다.

원불교 여자교무 복장인 저고리·짧은 통치마 역시 실용적이면서 검소 질박한 복장으로 개화자강의 목적에서 제정된 사회개혁 사상이 반영된 복장이다.

또한 미륵불교의 창교주는 의복을 문명의 수준을 나타내는 수단과 우주의 이치를 담은 이치복으로 인식하여 모든 교인에게 색복 착용을 권장하면서 의례복을 청색 계열로 제정하였다.

수운교에서는 교단 초기부터 상하, 남녀 구별없이 모든 교인이 똑같은 의례복을 착용하였다. 기성 종교에서 남녀 또는 출가·재가에 따라 다른 복장을 착용한 것과는 달리 의복을 통한 평등 사상의 표현이었다. 미륵불교에서도 의례복을 직위나 도위, 남녀의 구분없이 모든 교인이 착용하는 것은 의복을 통한 신분의 구별이 있을 수 없음을 내포한 평등 사상의 표현이다. 특히 수운교 仙服의 형태는 무가 있고 뒷술기가 트였으며 소매가 넓은 사대부 등이 주로 착용하던 대창의인데, 이 옷을 여자에게도 착용토록 한 것은 획기적인 남녀평등 사상의 반영이며 인간중심 사상의 표현이다.

대종교의 의례복은 우리 기본 袍의 형태와 백의 민족의 상징인 백색을 사용하여 민족 정신을 북돋우고 전통을 고수하고자 하는 민족 주체 사상과 애국 계몽 사상의 표현이다.

신종교 복식에는 개화의 기본 사상인 평등 사상과 개화 자강 사상, 위정 칙사 사상 등이 교단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나름대로 표현되고 있다.

청색은 지성이나 정신을 나타내는 내면으로 향하는 색으로 파괴되어가고 있는 자연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에콜로지적 성향의 자아성찰적 색채로 인간성 회복과 자유와 자연스러움의 상징이다<sup>47)</sup>. 그리하여 서방에서 블루의 진폐션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자유로운 옷으로, 남녀 평등 사상의 표현물로 입혀지고 있다. 그런데 신종교인 미륵불교에서는 다섯 方位를 나타내는 오행색 즉 동은 청색, 남은 적색, 중앙은 황색, 서는 백색, 북은 흑색과 연결되는<sup>48)</sup> 오행사상의 색채 사용을 보여 주고 있다. 이를 테면 우리나라는 동쪽에 위치해 있으므로 의례복의 색을 동양의 상징색인 청색계열을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이치에 합당하다고 보았다.

단군을 교조로 모시는 신종교 중의 하나인 한얼교의 의례복(그림 7)은, 위에 입는 두루마기는 하늘색인 청색을 사용하여 동양의 형이상학을 상징하고 아래 바지는 서양식 양복바지를

46) 유수경, 한국여성양장변천사, 일지사, p. 29, 1991.

47) 김소영, 양숙희, "진폐션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20권 4호, p. 21, 1996.

48) 임서운, "고대 동양 복식제도의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pp. 22-29, 1983.

약간 개조한 마지로서 땅색인 흙색으로 서양의 형이하학을 상징한다. 정신적 우위에 있는 동양이 위에, 물질적 우위에 있는 서양이 아래에 있음으로서 온전하게 통일을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하늘색은 한얼을 의미하고 흙색은 땅을 의미하면서 가운데 사람이 이를 통합한다는 뜻을 표상하고 있다. 즉 한얼교의 의례복식에서는 동서양의 조화로움 속에서 동양이 주역임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환경 운동가인 張元은 한국 정신의 원형을 바탕으로 21세기 환경 세계화로 새시대 녹색 문명의 새벽을 이끌어 갈 힘이 우리의 사상, 예를 들어 동학에서의 原始返本 思想, 원불교에서의 우주만유 일체 사상, 풍류와 풍수 사상 속에 들어 있어 전체 인류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sup>49)</sup>.

한국인의 종교심성은 샤머니즘이 그 기층을 이루었고, 거기에 더하여 불교, 유교, 기독교의 영향을 받아 결정되었으므로 그들의 종교 심성은 외래 종교를 받아들이면서도 새로운 혼합 종교를 모색하던지 혹은 그 종교를 흡수하여 샤머니즘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sup>50)</sup> 고 하였듯이 한국인의 종교 심성은 갈등과 마찰보다는 조화와 회통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신종교에서도 이러한 사상은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그들의 이러한 종교 합일 정신을 의도적으로 복식에 표현하고자 하였다. 수운교에서는 의례복식의 형태나 색, 또는 명칭 등을 통하여 유·불·도 3교합일 사상을 표현하고 있다<sup>51)</sup>. 미륵 불교 의례복식 역시 仁和冠은 유교, 正服은 도교, 胞衣는 불교를 표상하여 각각의 피복이 하나의 복장으로 완성되듯이 의례복장화되면서 종교합일이 이루어짐을 표현하고 있다.

## IV. 결 론

신종교란 기성 종교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새로 일어난 종교라는 뜻이다. 그러나 신종교는 같은 語義의 단어인 신흥 종교와 구별하여 대체적으로 근세 이후 한국에서 새로 창립된 종교 중에서 그 종교의 가르침 속에 진리성, 윤리성, 역사성, 대중성 등이 들어 있으며 교리나 사상, 제도 등이 건전한 종교를 일컫는다.

한국의 신흥종교는 1860년 수운 최제우에 의해 창시된 동학을 효시로 하여 현재 300 여개 종교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천도교, 증산교, 원불교, 대종교 등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 신종교 사상속에는 종교합일 사상, 후천개벽 사상, 민족주체 사상, 인간중심 사상, 사회개혁 사상 등 공통적인 사상이 발견되고 있다. 신종교 중에서 의례복식이 제도화되어 있는 수운교, 미륵불교, 대종교, 원불교를 중심으로 하여 신종교 의례복식의 특성을 고찰해 본 결과에 의하면 多元性, 民族主體性, 象徴性, 思想性을 찾을 수 있었다.

多元性은 서로 갈등없이 존재하는 특성으로 종교 합일성과 맥락을 같이 하는데, 신종교 의례복식에서는 기성종교 복식에서 그 형이나 색, 명칭, 문양, 의미들을 취하여 이것들이 서로 공존하면서 독창적인 의례복식이 창안되는 다원성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었다.

민족 주체성은 신종교들이 민족의 생존이 위태로운 시기인 개화기를 전후하여 창교된 관계

49) 張元, 앞의 발표초록, pp. 17-23.

50) 林在光, "한국인의 종교심성에 대한 고찰", 침례신학대학 석사 학위논문, p. 36, 1984.

51) 임상임, "한국 신종교 의례복식 고찰(II)", p. 7.

로 그들 사상속에 강한 민족 의식이 나타나듯이, 그들의 의례복이 주로 우리의 기본복식을 근간으로 하여 제정된데서 볼 수 있었다.

상징성은 일반복식에서 보다 종교복식에서 두드러지듯이 신종교 복식에서도 형이나 색, 명칭 등을 통하여 종교 이념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상징성을 볼 수 있었으며 의례복식 자체가 하나의 상징물이기도 했다.

복식은 그 시대의 사상을 담는 그릇이므로 신종교 복식에도 종교합일 사상, 사회개혁 사상, 남녀평등 사상, 인간중심 사상, 민족주체 사상, 인간·환경 조화사상 등이 들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이상에서와 같이 신종교 의례복식의 특성을 통하여 종교 복식 문화의 깊은 정신을 발견하고 신종교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가하고 수용하는 종교 문화가 신종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김성택, “원불교의 환경윤리”, 원불교와 학문(원불교 교수협의회) 제 1집, 1996.
2. 김소영, 양숙희, “진폐션의 미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제20권 4호, 1996.
3. 김태곤외 7인, 한국종교,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83.
4. 김태희, “한국승복의 역사적 연구”, 숙명여대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1988.
5. 김홍철, 한국신종교 사상의 연구, 집문당, 1989.
6. 김홍철외 2인, 한국신종교사상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2.
7. 동아일보, 1996년 12월 2일.
8. 류병덕, 한국 민족종교 사상론, 시인사, 1985.  
류병덕, 한국 신종교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종교학회, 1985.  
류병덕, 한국 신흥종교, 시인사, 1986.
9. 류병덕외 2인, “한·중·일 3국 신종교 실태의 비교연구”,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92.
10. 문상희, “한국 신흥종교의 계보”, 크리스찬 아카데미, 1971.  
문상희, “한국의 신흥종교”, 한국종교, 한국종교사학회, 1983.
11. 미륵불교총본부, 報恩祥禮大全.
12. 백준홍, 삼동윤리에서 본 종교다원주의, 원불교학 창간호, 1996.
13. 손병님, “동아일보에 나타난 복식의 연구”, 한양대학 석사학위논문, 1989.
14. 안병숙, “袈裟의 衍衣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 박사 학위논문, 1989.
15. 원불교 사상 연구원, 崇山論集, 원광대학교 출판국, 1996.
16. 유수경, 한국여성양장변천사, 일지사, 1991.
17. 유지현외 2인, “텍스트로서의 소설에 나타난 상징의 의미분석 방법론과 그 적용”, 복식문화연구, 7호, 1996.
18. 임상임, 한국 신종교 의례복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1991.  
임상임, “한국 신종교 의례복식 고찰( I )”, 복식, 한국복식학회, 제19호, 1992.

- 임상임, “한국 신종교 의례복식 고찰(Ⅱ)”, 원광대학교 논문집, 제27집, 1993.
- 임상임, “신종교 복식과 개화기 사상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논문집, 제31집, 1996.
- 임상임, “한국 신종교 의례복식과 思想에 관한 연구”, 복식 제27호, 한국복식학회, 1996
19. 임서운, “고대 동양 복색제도의 비교연구”, 성균관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983.
  20. 林在光, “한국인의 종교심성에 대한 고찰”, 침례신학대학 석사 학위논문, 1984.
  21. 張元, “환경 세계화와 그린르네상스”, 96원불교 교수협의회 정기훈련 발표 초록, 1996.
  22. 탁명환, 한국신흥종교실상, 국중출판사, 1991.